

# 시리아 '일촉즉발'...국제 원자재 시장 요동

## 트럼프 '군사 옵션' 시사

## 원유·알루미늄 값 폭등

## 러시아 제재 변수될 듯

미국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이유로 군사 공격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짙어지면서 11일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가 4% 가까이 치솟고 알루미늄 값도 폭등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의 6월물 가격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새벽 4시(이하 한국시간) 71.34달러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2014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것이다. 전날보다 배럴당 3.9% 오른 것이다.

브렌트유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도 71달러를 웃도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가격도 이날 새벽 4시 15분 배럴당 65.86달러까지 치솟아 전날보다 3.8% 뛰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이후 2주 만의 최고치이다. 이같은 급등세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도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도 시리아 지원 의혹을 들어 추가 제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알루미늄 가격도 치솟고 있다.

러시아 알루미늄 생산 대기업인 루살(Rusal)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거래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지난 10일 1당 2201달러에 거래를 마쳐 2.9% 뛰었다.

미국이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표한 지난 6일을 기점으로 최근 5달 동안에는 11% 뛰어오른 것이어서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특히 루살이 미국의 제재로 직격탄을 맞은 사이 미국,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알루미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전망에 미국 알코아(Alcoa), 센츨리 알루미늄(Century Aluminum)은 지난달 29일부터 주가가 각각 17% 뛰어올랐다.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주요 생산 업체인 흥차오그룹의 주가가 이번주 들어 7%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루살을 포함한 러시아 기업들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쌀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스위스 원자재 거래 업체인 글렌코어(Glencore)의 최고경영자인 이반 글라젠베르크는 루살 이사회에서 최근 물러났으며,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기업인 올레크 테리파스카의 에너지 업체 EN+에서도 외국인 이사 2명이 각각 지난 6일, 9일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손까지 잡았지만...안보리 '빈손' 니키 헤일리(오른쪽) 유엔주재 미국 대사와 바실리 네벤차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미국이 제안한 '시리아 결의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시리아의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 美 "北 대담한 행동할 때"

## 北 단계적 비핵화 거부감

미국 국무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방송은 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우리는 다르게 일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전세계의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하면 더 밝은 길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일본 EEZ에 희토류 1600만t 매장"

일본 동쪽 끝 오가사와라제도 미나미도리시마 주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가 전세계가 수백년간 쓸 수 있는 1600만t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존 추정 매장량의 2배가 넘는 규모다.

도쿄대학의 가도 아스히로 교수와 와세다대학 다카야 유타로 교수 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10일 자국 과학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했다. 이 연구는 희토류가 풍부한 미네랄인 몬테리이트를 분석한 결과로, 몬테리이트는 희토류 원소인 이트륨·디프로슘(Dy)을 전세계 수요 730년분, 레이저 등에 이용되는 이트륨(yttrium·기호 Y)은 780년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희토류를 높은 농도로 함유하는 생물의 이빨과 뼈를 구성하는 인산칼슘에 착안, 원시력이 생산량의 90% 가까이 접하고 있어 현재 각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일본 언론은 자국 EEZ 해저의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게 되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자원 빈국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이곳에서 희토류 매장사실을 확인한 연구팀은 2015년까지 조사선을 이용해 미나리도리시마 남쪽 250km 지점 해저(깊이 약 5600m) 25곳에서 바닥 샘플 시료를 채취, 희토류 농도를 분석해 매장량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하이브리드 차 등의 강력한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dysprosium·기호 Dy)은 전세계 수요 730년분, 레이저 등에 이용되는 이트륨(yttrium·기호 Y)은 780년분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희토류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희토류를 높은 농도로 함유하는 생물의 이빨과 뼈를 구성하는 인산칼슘에 착안, 원시력이 생산량의 90% 가까이 접하고 있어 현재 각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일본 언론은 자국 EEZ 해저의 희토류를 채굴할 수 있게 되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자원 빈국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시진핑 시장 개방에 테슬라 중국 공장 속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시장 개방 확대 약속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 공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를 추진해 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올해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25%에 달하며,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해외 자동차 업체는 반드시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해야 한다. 해외 자동차 업체의 합작 법인 지분율은 50%를 넘지 못한다.

시 주석의 시장 개방 약속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즉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것은 중국이 취한 매우 중대한 조치로서,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되면 모든 나라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가 이처럼 발 빠른 '화답'에 나선 것은 시 주석의 발언이 테슬라의

중국 공장 건립에 청신호를 밝혀줬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자유무역지대인 린강에 자동차 공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00% 지분 소유를 원하는 테슬라 측에 맞서 중국 당국이 합작 투자를 고집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은 난항을 겪었다.

이제 시 주석이 자동차 업종에서 외자 투자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테슬라가 중국에 독자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대기 오염에 시달리는 중국에서도 미국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중국 시장 본격 진출은 중국 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길 이유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11개 자유무역지대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업종의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테슬라는 중국에 1만7천여 대의 전기차를 수출해 전년 대비 51.6%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시리아 화학공격 사실"

## 미 정부 쫓겨...대응 촉박

미국정부가 시리아에서 화학공격이 벌어졌다는 의혹에 거듭 확인을 나타냈다. 응징 방법 선택만 남겨둔 셈이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0일(미국 동부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시리아 수도 동쪽 동(東)구타 두마 구역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있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나워트 대변인은 "미국은 화학무기류가 그곳에서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화학무기금지조약(OPCW)의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나워트 대변인은 "OPCW의 조사 착수 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자체 정보력이 있고 OPCW는 자신들의 현장 정보가 있으니, 서로 정보 종류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OPCW를 중립적인 기구로 인식한다면서도 미국은 자체적인 확인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리아는 OPCW의 사실조사팀을 공식 초대했다. OPCW는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되, 사용 주체를 가리지는 않는다.

러시아·시리아가 OPCW를 통한 조사를 강구하는 것은 화학공격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은 OPCW의 조사와 무관하게 화학공격 발생을 확인하며 쫓겨가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미국은 화학무기 사용 주체를 응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미국이 서방과 군사적 수단을 선택한다면, 시리아군에 타격을 주면서도 시리아에 주도하는 러시아군과 충돌을 피하는 방식과 수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알제리 군용기 추락

## 외신 "최소 105명 사망"

아프리카 알제리 북부의 보우파리크 군기지 인근에서 11일(현지시간) 오전 군용기가 추락했다고 AFP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군용기는 러시아제 일류신 수송기이고 군 비행장을 이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이 사고로 최소 105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부아파리크는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이다.

현장에는 구조대가 급파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나주, 2층주택,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1000만원~~  
급매 - 6200만원  
(일시불 완불조건)
- H. 010-6838-1230